

대학위기시대 대외지원 비상

국고보조금 감축, 종합강의동·주차장 시공업체 재정난으로 건설 차질

각종 예산 감축 발표

대학재정 위기시대를 맞은 요즘, 모든 대학들은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된 예산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예산 감축 이유로는 대학 자구적인 절약의지를 첫째로 들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도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렵다보니 대학들에 대한 외부 지원 역시 하향세를 걷게 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 탓에 지난 2월 23일 개최된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임원회의와 27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기업대학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기도 했다.

대학도 부도로 쓰러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 기인한 현상이다.

우리학교 역시 예년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대외지원 현황이 좋지 않은 편이다.

97학년도에 34억4천5백만원이 지급되었던 국고보조금의 경우 30% 가까이 감축 지일될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연구프로젝트, 병원전입금, 장학금 등 외부 수입입금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획조정실이 발표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입 및 기부수입이 97년도에 3백70여억원인 것에 비해 올해는 그보다 70여억원이 줄어든 3백여억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

그 외에도 고정 자산관련 수입을 제외한 기타 수입액이 감소해 전체 수입 또한 50억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학교의 경우 양캠퍼스 모두 대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캠퍼스의 종합강의



▲ 대학재정난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안은 각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다.

동과 수원캠퍼스의 우정원 공사를 꼽을 수 있는데 공사기까지 가격이 폭등한 요인이 있다. 그러나 나산이 파산할 경우 대비, 학교측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먼저 서울캠퍼스 종합강의동의 경우 주식회사 나산이 공사를 맡았으나 지난 1월 14일 맞은 부도로 공사가 차질을 빚게 되었다.

나산은 부도 이후 2월 2일부터 공사를 재개했으나 지난 3월 3일 계열사인 주식회사 대평이 연쇄 부도를 맞으면서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이에 나산은 법정관리를 신청, 지난 19일 대표 관리이사가 선임된 상태이다. 나산이 법정관리를 승인받을 경우

앞으로 15일 내지 길게는 3개월 후면 정상적으로 공사가 재개된다.

그러나 나산이 파산할 경우를 대비, 학교측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대형공사 차질

현재 굴토공사가 55% 정도 완료된 서울캠퍼스 종합강의동은 총 2백억원 정도를 당초 공사비로 책정했으나 진행 과정 중 종합강의동과 함께 운동장 지하로 들어설 예정인 주차장의 규모가 8천평 정도 확장, 계획됨에 따라 그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문제는 바로 이 주차장 공사인데, 원래 나산이 무료로 공사해 줄 것을 계약했던 터라 나산이 파산할 경우, 송신이 종합강의동 전역건설을 맡아야 하고, 주차장 공사 또한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거부할 경우 건설업체조합에 의의를 신청하면 20억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어 금전적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전적인 피해를 제외한다고 해도 현재 공사 중단으로 인해 이에 배치된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데다 법정관리 결정일이 늦춰질 경우 완공 예정 일인 99년 8월 31일에 공사를 완료하기가 어려운 가능성도 보여 당초 학교 운영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

자구책 마련 위한 노력 필요
그런가 하면 수원캠퍼스의 우정원 공사를 맡았던 주식회사 부영도 재정문제로 결국 우정원 공사에서 손을 떼게 되었다.

공사를 중단한 지난 97년 4월 현재 굴조공사가 마무리된 우정원은 장기적 공사 중단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우려를 낳던 중 LG건설과 약정이 체결, 오는 4월 중으로 새롭게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부영에서 지급했 해온 굴조공사분과 모든 권한은 우리학교로 위임됨에 따라 재정적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8월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두고 볼 때 우리 학교도 재정적 안정권에 진입한 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이제 얼마나 탁월한 방식으로 대외지원을 유치하는가만이 대학간 경쟁 요소로 남아 있다.

교육부가 매년 전국의 대학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도 좋고 활발한 대외홍보를 통한 협력금 유치도 좋다. 이제 면밀히 검토하고 발로 뛰어야 할 때이다.

(강남이 기자)



로고 상품 판매 본격화

양캠퍼스 내에 우리학교 로고상품 판매매장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서울캠퍼스 북지하관 5층, 수원캠퍼스 학생회관 로비에 자리한 '경희매장'에서는 우리학교와 (주)University가 협력제작한 상품들을 판매한다.

판매품목은 문구류, 의류 등으로 다양한 재학생들의 호응이 기대된다.

지면안내

- 3 시사
- 4 국제경제 흐름속의 한국
- 5 사회
- 6 우리나라 환경경쟁력의 현주소
- 7 지역·의료원
- 8 구인·구직 만남의 날
- 9 학술
- 10 대학이 나갈 방향과 이념
- 11 문학
- 12 만화, 어떻게 볼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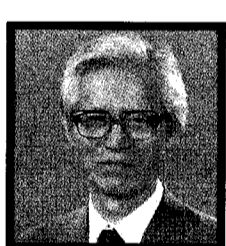
이주의 학사

23일(월)	24일(화)	25일(수)	26일(목)	27일(금)	28일(토)
	6차 인성교육 및 진로특강	서울전학대회			
		최종등록기간			

학생처·총학간 대립 팽팽

총학 제시 질의서 답변 과정 중 의견 맞서

진용우(영문)교수 타계



문리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진용우 명예교수가 지난 18일 오후 6시 별세했다. 평소 빈혈치료를 위한 수술로 인해 발발한 합병증이 사인으로 보이며, 발인은 지난 21일 오전 7시였다. 세익스피어 희곡을 전공한 진교수는 생전에 셰익스피어에 대한 논문을 다수 발표하는 한편 17C, 18C 영문학에 대한 저서를 집필하던 중 운영했다.

최종등록 31일까지

교무처는 98학년도 1학기 최종등록기간을 공고했다. 등록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서울캠퍼스는 서울은행과 국민은행으로, 수원캠퍼스는 외환은행으로 등록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번 기간 중 미등록시 제적 처리된다.

9개 사립대 총장 간담회

오는 28일 오전 11시 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에서는 '주요 사립대 총장 초청 간담회'가 개최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3일 교육부 장관 주최로 모인 11개 대학 총장들이 그 자리에서 각 대학 순회 방문을 계획한 후 처음으로 갖는 것이다. 우리학교 조정원총장을 비롯한 자리에는 건국대 윤형섭 총장, 고려대 홍일식 총장, 숙명여대 이경숙 총장, 연세대 김병수 총장, 이화여대 장삼총장, 중앙대 이종훈 총장, 한양대 김중량 총장, 홍익대 심상필 총장 등 9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다. 이날 간담회는 우리학교 브리핑, 홍보비디오 시청, 오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학생생활규정 관련 학교·총학생회측 입장을 나타낸 대자보와 지난 19일 총학생회가 밖으로 드러낸 학생처 집기.

학생생활규정 통과를 사이에 둔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와 학교 측간의 대립이 날이 갈수록 더해져 총학생회 학생들이 학생처의 집기를 들어내는 등의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1일 총학생회는 총 5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공개질의서를 총학측에 전달했다.

질의서의 내용에는 △학생생활규정의 일방적 통과 이유 △학생생활규정 철폐 의사 및 훼손되는 학생 자치권의 대안 △학생회관 24시간 개방 및 학생자율적 관리 △장기적 경회발전 철학과 계획 △학부제 문제점 보완책과 진행 계획 등이 포함됐다.

총학생회는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지난 14일까지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학교측은 이를 후인 16일 오전 학생처장 명의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측은 "학생들을 학원의 일 주체로 여기지 않고 지도와 통제 대상으로 생각하는 처사"라며 총장 명의의 성의 있는 답변서를 지난 19일 정오가

재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측의 답변이 없자 총학생회는 19일 오후 2시 40분경 학생처의 집기들을 사무실 밖으로 들어냈다.

이에 대해 학생처는 "현재 행정 체계상 각 부처의 처장들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도록 되어 있는 이유로 학생과 관련된 이번 사안을 학생처장 명의로 처리한 것"이라며 "무리한 행동이 행정마비를 가져오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이준혁(한 94) 부총학생회장은 "이번과 같은 행동은 항의의 표시일 뿐 행정상의 마비를 원한 것은 아니다"라며 "학생들과 관련된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정 업무를 중단한 것은 모든 책임을 학생회로 돌리려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일 총학생회가 주최한 공개토론회는 학교측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학과나 단대별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데 그쳤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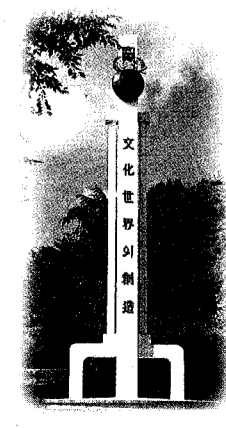
'이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말도 있다. 이 두 속담 사이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상반성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이는 것'을 지향해 왔다. 인류 역사가 진보한 것도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에서 기인했으므로 안다는 것, 보다 정확히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는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최근 학부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학교측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아직은 가안인 상태이므로 학생들과 협의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학교측의 설명이다. 다만 학부제 개편을 둘러싼 시행안을 단계별로 교수들과 수 차례 논

의한 바 있고 의견 수렴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과정에서 논의 자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아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일부대학에서는 '김금학대운영회'까지 개최되었다. 학교로서는 아직 구체적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공표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진행된 학부제 논의 내용마저도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전달됐는지 의문이다. 또한 학생들은 논의 자체에서 자신들이 배제됐음을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

학부제는 우리학교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이를 정확하게 알리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학부제 시행 자체에 관한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논의 사실마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부제는

사실상 학생 위주의 대학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전공선택의 폭을 넓히고 학교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 그러나 학부제 시행에 관한 이해에 문해 논의 사실마저 전달되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정책 결정을 유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간의 불신과 반목의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보다 적극적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교수들 역시 논의된 과정을 학생들에게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 왜냐하면 학생들 역시 학부제의 당사자이므로 이들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는것은 힘이다. 오도된 정보로써 그 결과를 예측하지 말아야 한다. 학부제 자체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통해 학생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학부제가 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문택 기자)



교시칼

사 고

대학주보 47기 수습기자 합격자 발표

지난 18일과 19일 양캠퍼스 편집실에서 치른 입사시험 결과 16명이 대학주보 47기 수습기자로 선발되었습니다. 합격자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합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캠퍼스】
정정미(철학 1) 김주애(지리 1) 박신영(정치행정 1)
김태권(경영 1) 권인성(경영 1) 서해동(경영 1)
임성묵(경영 1) 이상 7명

【수원캠퍼스】
이재화(불문 1) 김상희(중문 1) 이승재(서양 1)
채민선(경영 1) 이광호(자연과학 1)
김낙연(삼우화학산업공 1) 김상현(삼우화학산업공 1)
이상필(전자전산전공 1) 윤보훈(생명자원과학 1)
이상 9명

대학주보사